

승의중·고교 개교 60주년 기념식



학교법인 승의학원 승의중·고등학교가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기념식을 개최했다.

“높은 뜻 ‘승고한 가치’를 의미하는 승의(崇義)학원 설립자인 고창산 김신근 목사가 1959년 5월 8일 학교를 세운 뒤 지금까지 6만 여명의 지역 인재를 배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다시금 승의 100년’의 비전을 선포하고, ‘승의 60년사’ 발간 배경 설명, 21세기를 이끌어갈 선언문 채택, 기념비문 설립 등의 기념 행사가 이어졌다.

박선주 승의학원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개교 60주년을 맞아 승의 가족이 하나가 돼 전국적인 명문 사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건보공단, 보험증 사전관리 간담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원길)는 16일 전남대학교병원 등 15개 요양기관 담당자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및 상해요인 사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지역본부는 “병원협회와 관련 기관 등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올 하반기부터 입원환자에 대한 신분증 확인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병원 등 15개 요양기관 담당자들도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입원환자 본인확인제도 및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공단업무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원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대한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보성교육지원청, 퇴직 교원 초청 꽃다발 증정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백남근)은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퇴직 교원을 초청해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노고를 위로했다.

(보성교육지원청 제공)

전남대 출신 이수경 교수 美 2개 석좌교수 임명

미 오레곤 의과대 재직중

뉴욕 주립대서 동시 석좌 초빙
딸 앓고 있는 희귀병 연구 주도
전남대 “스타 과학자 탄생 뿌듯”

전남대학교에서 학·석·박사 과정을 모두 마친 ‘여교수’가 미국 교수사회에서도 드문 두 개의 석좌교수직에 임명돼 과학계 화제가 되고 있다.

16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출신 이수경(여·43·사진 오른쪽) 교수는 뉴욕주립대학교 버펄로 캠퍼스 생물학과에서 제국혁신 석좌교수(Empire Innovation Professor)로 초빙된 데 이어 최근에는 같은 대학에 개설된 옴피 바알 석좌교수직에 임명됐다.

제국혁신 석좌교수는 66개 캠퍼스를 보유한 뉴욕주립대 본부가 마련한 기금을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저명한 교수를 초빙하거나 저명한 교수가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직위다.

뉴욕주립대학교는 버펄로 캠퍼스 생물학과와 의 초대 학과장인 2004년 숨진 옴 피 바알(Ohm Bahl)교수를 기리려고 최근 신설했다.

이 교수는 오는 9월부터는 뉴욕주립대 버펄로 캠퍼스 생물과 정교수이자 제국혁신 석좌교수, 옴 피 바알 석좌교수 등 세 개의 공식 직함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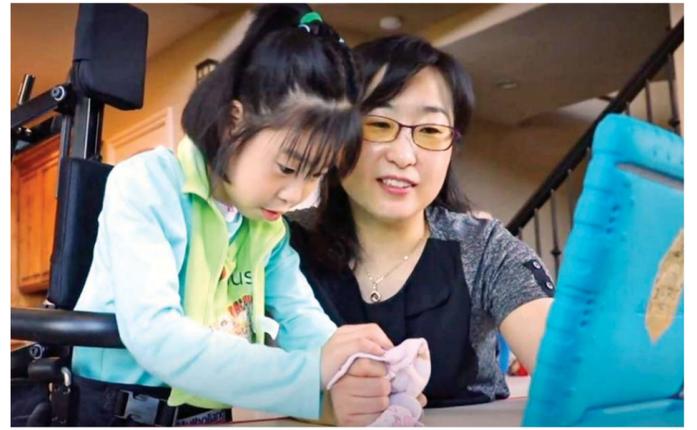
미국의 석좌교수(Endowed Professor) 제도는 탁월한 연구 업적이나 사회 활동으로 명성을 얻은 교수에게 기관 혹은 개인이 기부한 기금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교수는 전남대 약대 학·석사, 자연대 생물과 박사 과정을 마치고 소아마비 백신 개발로 유명한 조너스 소크 박사가 설립한 연구 기관에서 박사 후 연구 과정을 거쳤다.

28세 때인 2004년 미국 명문인 베일러 의대(텍사스 휴스턴)에 개교 이래 최연소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교수는 딸이 최근 발견된 ‘FoxG1 Syndrome’ 희귀 신경 질환을 앓게 되자 전공을 살려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을 모아



이수경 교수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보살피고 있다.

(전남대학교 제공)

샌디에이고에서 ‘제1회 FoxG1 Syndrome 콘퍼런스’를 개최했으며, 딸의 질환을 연구하는 엄마 과학자의 사연이 지난해 뉴욕타임스에 소개되기도 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딸의 병간호 등으로 이교

수 자신의 건강도 크게 나빠져 생사를 넘나 들었으나 4년간 투병 끝에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다”며 “모교 출신 ‘스타 과학자’의 탄생에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김홍빈 대장 ‘히말라야 가서브룸 I’ 대장정 나서



김홍빈(오른쪽에서 여덟번째) 대장과 대원들이 지난 15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9 김홍빈 가서브룸 I 원정대’ 발대식에서 등정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어제 원정대 발대식...29일 출국
장애인 최초 히말라야 14좌 도전
13번째 봉우리...광주일보 후원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완등에 도전하는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13번째 8000m 봉우리인 가서브룸 I (8068m) 원정에 나선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회장 이용섭 광주시장)는 15일 광주시청에서 ‘2019 김홍빈 가서브룸 I 원정대’ 발대식을 열고 등정 성공을 기원했다.

발대식에는 이 시장과 원정대 고문을 맡고 있는 장병완 국회의원·류재선 한국전기공사 협회 회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정원주 원정대 단장, 박만영 펄빙 회장, 원정 대원과

주진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코트인 수리와 달이 인형을 전달하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등반과 수영대회의 성공을 함께 기원했다. 이 시장은 “김홍빈 대장을 보면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꿈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난다”며 “그동안 두 차례나 등정을 시도했지만 굶은 날씨로 접어야 했던 곳에 또다시 도전에 나서서 김 대장의 불굴의 의지에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 대장은 “등정 기간과 대회 기간이 겹쳐 어렵게도 멀리서 지켜보겠지만 수영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반드시 등정에 성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김홍빈 대장은 1991년 북미 최고봉인 매킨 리(6194m) 단독 등반 도중 동상으로 열 손

가락을 모두 잃었지만, 불굴의 의지와 투혼으로 이를 극복하고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해 ‘희망 전도사’로 불린다. 이후 지난 2006년 파키스탄 가서브롬 II 봉(8035m) 등정을 시작으로 히말라야 14좌 완등 레이스에 도전해 지난해 5월 안나푸르나(8091m)까지 모두 12개 봉우리 정상에 올랐다. 14좌 완등까지는 가서브룸 I과 브로드피크(8047m)만 남겨두고 있다.

원정대는 오는 29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출국해 7월 말까지 두 달여의 대장정에 나선다. 정상 공략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이 임박하는 6월 말에서 7월 초로 잡고 있다. (사)광주전남장애인체육회 후원하는 이번 원정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중흥S-클래스, LG, (주)플링, 광주일보 등이 후원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PGA 챔피언십 앞둔 캡카 이발하고 팀 95만원 지불

‘메이저 사냥꾼’ 브룩스 캡카가 PGA 챔피언십 2연패 도전을 앞두고 미용사에게 후한 인심을 베풀었다.

16일(한국시간)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캡카의 머리카락을 잘라준 미국 뉴욕 ‘큐스타일즈’ 미용사 제랄드 퀴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800여 달러를 쓴 사진과 함께 “팀을 줘서 고마워요 브룩스 캡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캡카에게서 한화 약 95만원의 팀을 받았다는 의미다.

퀴노는 인스타그램에 캡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겸손하고 멋진, US오픈 우승자 캡카의 머리를 자르고”라는 설명을 달기도 했다.

UPI 통신은 캡카가 큐스타일즈의 컷 요금 500달러이고, 캡카가 1천 달러를 내면서 팀 500달러(약 59만원)를 준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캡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또 봐요 제랄드 ‘큐스타일’ 퀴노”라는 인사를 남겼다.

캡카는 16일 미국 뉴욕주 파밍데일의 베스페이지 스테이트 파크 블랙 코스(파70·7459야드)에서 열리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지난해 우승자인 캡카는 1라운드로서 타이어 우즈, 프란체스코 몰리나리와 동반 플레이를 한다. 경기 전 남미 두툽한 팀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그가 이 대회 우승을 할 경우 200만 달러(약 23억7400만원)에 가까운 상금을 받는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33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 ▲노용재(전 서구청 복지환경국장)·정순복씨 장남 형섭군, 박상석·고(故)김미령씨 장녀 은우양=18일(토) 오후 2시 광주시 광산구 드림웨딩홀 2층 CN홀 062-228-0000.
- ▲김덕규(한국취트니스클럽 대표)·정은숙씨 아들 호선군, 정일식·김해경씨 장녀 지혜양=18일(토) 오후 5시 광주시 광산구 드림웨딩홀 4층 라비엔홀.
- ▲성경호·강해순씨 장남 재현군, 윤철웅·김길남씨 장녀 희진양=25일(토) 오후 1시 광주시 북구 까사디루체 웨딩컨벤션 1층 루체홀

종친회

-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청년이화월례회(회장 이태웅)=21일(화) 오후 7시 지원회의실 062-225-5636.
-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여성이화월례회(회장 이보희)=22일(수) 오전 11시 지원회의실

062-225-5636.

알림

- ▲100원회(회장 김희만) 2019년 정기총회 및 제20회 100원회 장학금 전달식=19일(일) 오전 11시30분 광주시 서구 금호동 서창농협 3층 회의실 011-666-0660.
-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 간프로그래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차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

- 건강추천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승광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 ▲지적장애인 성인 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차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모집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7가 169번길 호남분부 062-515-7521.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부음

- ▲이성모씨 별세, 이경률(전 광주시 인 권담당관)씨 부친상, 발인 17일(금) 오전 8시 광주시 광산구 만평장례식장 201호.
- ▲최연숙씨 별세, 정일·정화·정매·정미씨 부친상, 김민숙씨 시부상, 장호준·국건

- 웅·박윤창씨 부부상, 발인 18일(토) 오전 8시30분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 ▲진병수씨 별세, 오진(두산중공업)·오배(현대상호중공업)·선모씨 부친상, 최효숙·김미혜씨 시부상, 최상기씨 부부상, 발인 18일(토) 오전 9시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본관 3층 특12호 故김수현 님(남/89세) 子/子婦 : /장정, 김지현/류복순, 태영/김인양 영안, 영권/최영숙, 영우/서경옥 女/婿 : 김연숙/박성혜, 영혜/김무정 未亡人 : 장석태 ◇입관 : 5/16 16:00 ◇발인 : 5/17 07:00 ◇장지 : 임실호국원(화) ◇연락처 : 250-4412	본관2층 특7호 故이정섭 님(여/85세) 子/子婦 : 최성만/임민희, 성복 女/婿 : 최안/한복남, 순자 孫 : 최수은, 은영, 지영, 지선 ◇입관 : 5/16 11:00 ◇발인 : 5/17 08:00 ◇장지 : 영락공원(화) ◇연락처 : 250-4407
신관 3층 특302호 故김희경 님(여/90세) 子/子婦 : 최영수/유광희, /이현주 女/婿 : 최수원, 무령/안중운, 수빈/이영태 ◇입관 : 5/16 10:00 ◇발인 : 5/17 08:30 ◇장지 : 담양천주교묘역(화) ◇연락처 : 250-4472	본관 지하1층 5호 故장도영 님(여/85세) 子/子婦 : 이철수/이경숙, 충수/이만희 女/婿 : 이일자, 희숙/정순길, 동경 ◇입관 : 5/16 13:00 ◇발인 : 5/17 07:00 ◇장지 : 임실호국원(화) ◇연락처 : 250-4405

장례문화의 전당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062-250-4455 www.그린장례식장.co.kr